



국내외 청년들,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 2. 10.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개최
- 단원 40명이 약 5개월간 한국 관련 올바른 정보 확산 활동 전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월 10일(화),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만 18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발대식을 개최한다.

연간 활동 인원 확대로 활발한 한국 바로알림 활동 기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8개국 거주 청년 40명 선발

2013년,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으로 출범한 '바로알림단'은 해외 매체 등에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민간 홍보단(서포터스)으로서, 현재까지 총 744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그동안 연 2회, 기수별 35명씩의 단원을 선발해 연간 총 70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한국 바로알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별 40명을 선발, 연간 단원 총 80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제20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총 154명이 지원해 3.8: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브라질·튀르키예·러시아 등 8개국 거주 청년 40명(한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포부도 남다르다. ▲제18기부터 20기까지 세 기수 연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브라질 국적의 다니엘라(Daniella Pereira Doudement Santana) 단원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바로알림단 활동을 통해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다. 앞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더욱 정확히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제19기에 이어 제20기로도 활동하는 백종현 단원은 “지난 활동을 통해 오류 시정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제19기에서 쌓은 정보 분석과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활동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이번 발대식에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244만 명을 보유한 한식 콘텐츠 창작자 ‘쿠킴(Cookim)’이 연사로 참석해 한식의 매력과 콘텐츠 제작 비결을 공유하며 단원들의 활동 시작을 응원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세계화에 발맞춰 한국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전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 대응

‘제20기 바로알림단’은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 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를 통해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발맞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올바른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 분야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나타나는 한국 관련 오류 정보를 발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가 공감하는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한국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한 바로알림단의 노력에 문체부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민소통실 해외홍보기획과	책임자	과장	정은영 (044-203-3361)
		담당자	주무관	류서은 (044-203-3375)

